

강력한 원투펀치에도 압도적 '꿀등'...페퍼스 강점 찾아야



주전·백업 선수간 갭 줄이고 선수층 강화 필요
페퍼스만의 색 만들어갈 새 사령탑 선임도 시급

프로여자배구 V리그 2023-2024 시즌에서 압도적인 성적 차로 최하위를 기록한 페퍼스가 다음 시즌을 위해 어떤 준비에 나서야 할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페퍼스는 다음 시즌 도약을 위해 과거의 실패를 통해 변화를 찾아 나서야 한다.

페퍼스는 지난 16일 현대건설과의 홈경기를 마지막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번에도 압도적인 '꿀등'였다. 페퍼스의 세 번째 시즌 성적은 5승 31패 승점 17, 페퍼스에 앞서 6위에 자리한 한국도로공사 12승 24패 승점 39.

페퍼스는 2023-2024 시즌을 준비할 당시 무게감 있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었다. FA 시장에서 '대어' 박정아를 영입했고, 검증된 외국인 선수 야스민을 불러오며 강팀에게도 밀리지 않을 선수단 구성을 갖췄다. 하지만 페퍼스는 기대만큼의 성적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프로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구단만의 개성이 필수적이다.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조직력 있는 배구를 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스피드를 무기 삼아 상대의 허점을 빠르게 파고 드는 팀이 있다. 하지만 페퍼스는 페퍼스만의 플레이를 만들지 못했고, 같은 흐름의 패배를 이어갔다.

초반에는 경기를 리드하며 1세트를 따낸 뒤, 흐름을 잃거나 잦은 범실을 내며 경기를 끝까지 승리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식이었다. 여기에 조 트린지 감독의 배구, 선수들에게 익숙한 플레이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경기력 부진의 큰 원인이 됐다.

이번 시즌 페퍼스는 특히 중앙 블로킹 자원에 대한 약점을 드러냈다. 코트 중앙을 지켰던 미들 블로커 필립스는 공격면에서는 활약을 펼쳤지만 가장 중요한 블로킹에서 약세를 보였다.

또 다른 미들 블로커 염여름은 고질적인 우측 무릎 문제로 지난 1월 반월상관절 제거 수술을 마친 뒤 현재 재활 중이다.

처참했던 성적에는 아웃사이드 히터의 득점 지원

물이 높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공을 리시브로 받아내고 공격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핵심적인 자리다. 박정아를 포함해 박은서, 이한비 등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리시브 능력이 아쉬운 이유다. 공격형 아웃사이드 히터로 박정아를 둔 상태로 득점을 지원할 새로운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의 필요성이 절실했었다.

그간 야스민은 팀의 '최대 득점'을 도맡으며 분전해 왔다. 야스민이 계속해서 페퍼스와 함께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야스민이 다음 시즌에도 페퍼스 유니폼을 입기 위해서는 4월에 있을 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끝난 뒤 직접 트리아아웃 신청을 해야 한다. 야스민은 이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상태다.

허리부상으로 현대건설을 떠났던 야스민은 부상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페퍼스 유니폼을 입었다. 경기에서 무리를 할 때는 종종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컨디션을 거의 완벽하게 회복한 상태다. 팀의 소중한 승리를 이끄는 데 주력했던 야스민만큼 그와 구단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 시급한 문제는 바로 1군과 2군의 경기력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다. 큰 기록 없이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폭넓은 기용이 중요한 만큼, 페퍼스는 주전 선수뿐 아니라 교체 선수들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훈련과 선수층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 사령탑 선임이다.

페퍼스는 5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조 트린지 감독을 보내고, 이경수 감독 대행체제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초대 사령탑 김형실 감독은 두 번째 시즌에서 개막 후 10연패를 남기고 자진사퇴했고, 2대 감독이었던 이한 김은 지휘봉을 들지도 않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떠났다. 그리고 미국 대표팀 감독이라는 화려한 이력으로 주목받았던 조 트린지 감독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팀을 하나로 묶고, 페퍼스만의 색을 만들 사령탑을 찾아 새 판으로 짜야 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AI페퍼스 야스민(왼쪽)과 박정아가 공을 날리고 있다.



조재호·김가영, 프로당구 '최고의 별' 등극

신인상은 사이그너·한지은

'슈퍼맨' 조재호(NH농협카드)와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이 이번 시즌 프로당구 PBA 최고의 별로 선정됐다.

조재호와 김가영은 프로당구협회(PBA)가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개최한 '2023-24시즌 프로당구 PBA 골든큐 시상식'에서 나란히 대상을 받았다.

조재호는 남자부 PBA에서 시즌 7차 투어(하이원리조트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지난 17일 'SK렌터카 제주특별자치도 PBA 월드챔피언십 2024' 서도 정상에 올라 우승상금 2억원을 획득, 총상금 3억1900만원으로 시즌 1위에 올랐다.

김가영 역시 5차 투어(휴온스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LPBA 월드챔피언십 정상에 올라 우승상금 1억2005만원으로 시즌 랭킹 1위,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조재호는 팀 동료인 김현우와 함께 베스트 복식상, 베스트 단식상, '제비스코 상금랭킹' 상금왕까지 4관왕을 차지했다.



조재호

김가영

조재호는 "내년 목표는 월드챔피언십에서 한 번 더 우승하는 것으로 잡겠다. 정규 투어에서 빠르게 우승해 부담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가영은 여자부 LPBA에서 5관왕에 올랐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과 베스트 에버리지, 뱅크샷, 상금왕, 팀리그 대상을 차지한 그는 "선수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또 있을까 싶다. 개인 대상도 좋지만, 혼자서는 못할 팀리그 우승이 영광이고 기적이었다"고 감격을 전했다.

이번에 신인상은 개막전인 경주 블루원리조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세미 사이그너(튀르키예·휴온스)와 월드챔피언십 준결승에 오른 한지은(에스와이)이 수상했다.

장가연(휴온스)은 영스타상, 하비에르 팔라손(스페인·휴온스)은 뱅크샷상과 에버리지상 2관왕에 올랐다.

팀리그 여자 복식에서는 백민주-임정숙(이상 크라운해태), 혼합 복식에서는 황득희-이우경(이상 에스와이), 단식상 여자 부문은 김예은(엘컴저축은행)이 받았다.

베스트드레서 상은 다비드 마르티네스(크라운해태)와 전예선(휴온스)이 받았고, 경기 부문 공로상은 방기승 특보와 임정진 경기위원장이 수상했다.

후원사 부문 공로상은 SY(에스와이) 그룹, 지자체 부문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수상했다.

/연합뉴스

KLPGA 윤이나,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출전

1년 9개월 만에 징계 해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장타자 윤이나가 1년 9개월 만에 KLPGA 투어 대회에 나선다. 윤이나의 매니지먼트 회사 크라운은 윤이나가 4월 4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 출전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이나는 이날 KLPGA 투어 징계가 해제됐다.

윤이나는 2022년 한국여자오픈 때 러프에서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쳐낸 볼이 남의 공인 사실을 알고 고 플레이를 이어갔다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야 실토해 대한골프협회와 KLPGA 투어로부터 3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윤이나는 폭발적인 장타력을 앞세운 화려한 경기력으로 KLPGA 투어 관중 동원에서 으뜸으로 꼽힐 만큼 인기를 끌었다.

윤이나는 2022년 7월 에버폴라겐 킥즈크라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대한골프협회가 지난해 9월 윤이나가 충분히 반성했다는 이유로 먼저 징계 기간을 1년 6개



월로 줄이자 KLPGA 투어도 지난달 1년 6개월로 경감해줬다. 윤이나가 K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22년 7월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이나는 징계로 출전을 못 하는 동안 훈련과 함께 미국여자프로골프 미니투어와 호주 여자프로골프투어 대회 등에 출전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려 애써왔다.

윤이나는 "조기에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겸손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좋은 기량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인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은 윤이나와 작년에도 등장한 새로운 장타여왕 방신실이 처음 KLPGA 투어 대회에서 대결하는 무대가 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파묘
- 2관 둔: 파트2, 가여운 것들
- 3관 랜드 오브 배드, 밤 말라: 윈 러브, 메이 디셈버
- 4관 극장판 스피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
- 5관 둔: 파트2, 윙카, 당신이 잠든 사이
- 6관 파묘, [위드키즈]브레이브소: 셸럽 인 베이커리타운, 리볼버 릴리
- 9관 파묘, 당신이 잠든 사이
- 7관 싸네키틀 파묘
- 8관 싸네키틀 파묘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윤우재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